

▶ 내신 기출 문학 창비-상편 ◀

I 문학의 본질

*사랑 (30문제)-----	1쪽
*고향 (45문제)-----	10쪽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사과를 먹으며 (31문제)-----	30쪽
*봉산탈춤 (43문제)-----	42쪽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31문제)-----	68쪽
*사평역 / 사평역에서 (26문제)-----	83쪽
*예덕선생전 (32문제)-----	94쪽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 (12문제)-----	108쪽
*여백을 위한 잡담 (18문제)-----	115쪽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주몽 신화 (31문제)-----	123쪽
*국수 (33문제)-----	138쪽

◆빠른 전체 정답-----	154쪽
◆해설-----	156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사과를 먹으며” 분석 방법

- ①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② 성격 시색적, 성찰적, 역설적
- ③ 주제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 순환의 원리

- ④ 특징
 -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함.
 -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일상적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남.
 -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층적인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짐.

시적 상황	
먹는 것	의미
햇살	사과가 자라는 동안 함께한 자연을
장릿비	
소슬바람	
눈송이	계절의 순환을 거쳐 사과가 열린.
가운 사람의 명방울	사과가 열리기까지 사람들의 노력이 담김.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	
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지구의 중력	
우주	

형식적 특징 1	
1	'사과 ...을/를 먹는다'라는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
2	발바닥 없이, 입술도 없이, 표정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	

작품의 짜임	
(사과를 먹으며)의 짜임	
1~2행	사과를 먹는 행위
3~9행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자연물
10~12행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인간의 노력
13~19행	자연 순환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과
20~24행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

형식적 특징 2	
1	20~22행 들어 씬.
2	20~22행 '흙'이라는 단어를 시행의 첫머리에 반복
▽	
의도적으로 낮설게 함, 시적 긴장감 유발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을 통해 사과가 인간에게 돌아가는 순환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표현	

형식적 특징 3

1 문장의 반복과 확장, 변형

사과의 반복, 인식의 확장, 깨달음 강조

사행 헛머리에 반듯 배치하여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표현

사과를 먹는다 → '사과.....물/물 먹는다'라는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일상적 경험을 통해 삶의 원리를 성찰함.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 1~2행: 사과를 먹는 행위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 사과가 열리기까지 알맹이 지연물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조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 물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순환을 거쳐 열리는 사과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 3~9행: 사과가 열리기까지 알맹이 지연물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 열매를 맺기까지 힘쓴 사람들의 노력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 10~12행: 사과가 열리기까지의 인간의 노력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 13~19행: 자연 순환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과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지라던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성장하여 놓은 사과나무 가지에 사과가 열린 것을 의미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 의도적 사행 들여쓰기 → 시적 긴장감 조성, 자연 순환의 원리 강조
 인간에게 먹힌 사과가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 흙으로 돌아감.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 20~24행: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
 생명 순환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 표현(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
 - 『우울 씨의 1일』

“사과를 먹으며” 학습 활동 안내

1 이 작품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에서 주된 소재로 다루는 경험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2) 이 작품에 드러난 언어의 특징을 말해 보자.

‘사과 …… 을/를 먹는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고, ‘사과’라는 단어를 시행의 첫머리에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2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알아보자.

(1) 다음은 이 작품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채워 보자.



(2) 작가가 이 작품의 20~22행을 들여 쓴 까닭을 추측해 보자.

시행을 의도적으로 들여 써서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시행들은 모두 ‘사과’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20 ~ 22행만 ‘흙’이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흙에서 자라난 사과를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므로써 사과 또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자연 순환의 질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3) (1), (2)번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형식이 내용을 표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자.

이 시에서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목적어 ‘사과를’을 반복, 변형하면서 사과와 관계된 수많은 자연물, 사과를 키우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노력 등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확장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은 순환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의도적인 들여쓰기를 통해 낯설게 시행을 배치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생명 순환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문장의 반복과 변형은 사고의 반복과 그에 따른 인식의 확장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3 이 작품의 마지막 행에 담긴 의미를 첫 행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자.

첫 행의 “(나는) 사과를 먹는다”를 마지막 행에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로 바꿈으로써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이 흙에서 흙으로 순환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과를 먹던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영양분이 되어 사과에게 흡수된다는 순환의 고리를 문장의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바꾸는 변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결국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역설적,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4 다음 작품은 이정록의 「선풍기」이다. 작가가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형식상의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우리 집~~~~~
~~~~~선풍기는 열한 살~~~~~
~~~~~나랑 동갑내기, 맘 뽀뽀~~~~~
~~~~~일을 해도 “어이구 고물!~~~~~
~~~~~아이구 저 늙다리!”~~~~~
~~~~~구박받네~~~~~
~~~~~싫~~~~~
~~~~~고~~~~~
~~~~~서~~~~~
~~~~~러~~~~~
~~~~~워~~~~~
~~~~~도리질하던 선풍기~~~~~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 『저 많이 컸죠』

```

- 시행을 선풍기 모양으로 배열하여, 11년 된 낡은 선풍기에 대한 애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다.
- 낡았다고 구박받는 선풍기의 심정을 선풍기의 기둥 부분에 한 글자씩 배치(“싫/고/서/러/워”)하는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러운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트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 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가좌고등학교 (경기)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층적으로 의미를 확대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 세상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는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색채 대비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좌고등학교 (경기)

2. 위 시를 읽고 나는 학생들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맛비', '눈송이'는 '사과'가 극복한 고통으로 볼 수 있어.
- ② '사과가 나를 먹는다'를 통해서 화자와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엿볼 수 있어.
- ④ '흙'으로 시작하는 시행은 의도적인 들여쓰기를 통해 시상의 반전을 드러내고 있어.
- 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를 통해 현실을 회피하고자 했던 화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3.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④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대상을 통해 모든 존재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4. ㉠과 같은 표현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은?

- ①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②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들리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④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 ⑤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5. 위 시 내용적 의미 확장 과정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1. 위 시에 나타난 화자의 일상적 경험을 쓸 것 2. '조건1'의 경험에서 발견한 의미를 쓸 것 3. '조건2'에서 발견한 의미를 어떻게 확장 시켰는지를 쓸 것.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6. 위 시에서 사과를 먹는 경험과 관련된 시어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장맛비 ② 눈송이 ③ 벌레의 기억
- ④ 새소리 ⑤ 땀방울

인천초은고등학교 (인천)

7. 위 시의 창작 과정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일상적 경험	→	㉡ 사과의 확장	→	㉢ 주제 도출

- ① ㉠: 화자가 사과를 먹는 일상적 경험에서 시상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 ② ㉡: 자신이 먹는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 했던 자연물로 사과를 확장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먹는 사과를 키우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노력 등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으로 사과를 확장하고 있다.
- ④ ㉢: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이 흙에서 흙으로 순환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연과 인간의 주객전도(主客顛倒)의 상황을 드러내어 인간은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인천초은고등학교 (인천)

8. ㉠에 사용된 표현방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서정주, '견우의 노래'
- ②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노
-정지용, '고향'
- ③ 따뜻한 피만이 얼 수 있고 /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 이 겨울에 믿습니다.
-김용택, '섬진강15-겨울, 사랑의 편지'
- ④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⑤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십자가'

백양고등학교 (경기)

9. 위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과를 푸르게 만드는 '장맛비'와 사과를 열리는 '눈송이'는 사과가 겪어온 시련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② 의도적인 시행 배치를 통해서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상반된 주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 ③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은 사과가 성장하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벌레의 기억'이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벌레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과의 의미를 드러내며 대상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어.
- 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과의 모습에서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그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 같아.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양반 똥춤” 분석 정리

핵심정리

- 갈래 민속극, 가면극(탈춤)
- 성격 해학적, 풍자적, 서민적, 비판적
- 주제 양반의 허세와 권위 의식에 대한 조롱

핵심정리

- 특징**
 - 당시 지배층(봉건적 질서)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나타남.
 - 언어유희와 과장, 희화화 등의 표현을 통해 해학미를 드러냄.
 -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함께 나타남.
 -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음.
 - 공연 장소와 극 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지 않고 일치함.
 - 일정한 재담 구조를 반복함.

작품의 짜임

인물의 등장	병거지에 채찍을 든 말뚝이와 비정상적인 모습의 양반 삼 형제가 등장함.
말뚝이의 재담	'양반' 글자 뜻풀이, 담배, 장단, 양반 찾기, 새처 정하기 등의 재담을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비하함.
양반들의 글자 놀이	양반들의 시조 짓기, 운자 놀이, 파자 놀이를 통해 그들의 무식함과 허세를 드러냄.



재담구조의 반복

취발이 잡아들이기	취발이(상인)를 잡아들여 돈을 뜯어내는 양반의 횡포가 나타남.
인물의 퇴장	모두가 어울려 춤추며 퇴장함.

등장인물의 특성

말뚝이 : 풍자의 주체	양반 삼형제 : 풍자의 대상
양반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양반 계층의 어리석음과 무능, 허세, 횡포를 상징하는 인물
천민이지만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양반을 조롱	우스꽝스러운 외모와 언행을 통해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냄.
양반의 무능과 허세 폭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나오신단 말이오.

마구간에 들어가노새 원님 끌어다가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

-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 1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
-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 2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하야
돈을 받고 문제 처리하는 양반층의 부정부패
-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 3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을 비롯한 지배층에 대한 반감과 비판 의식

'쉬이'와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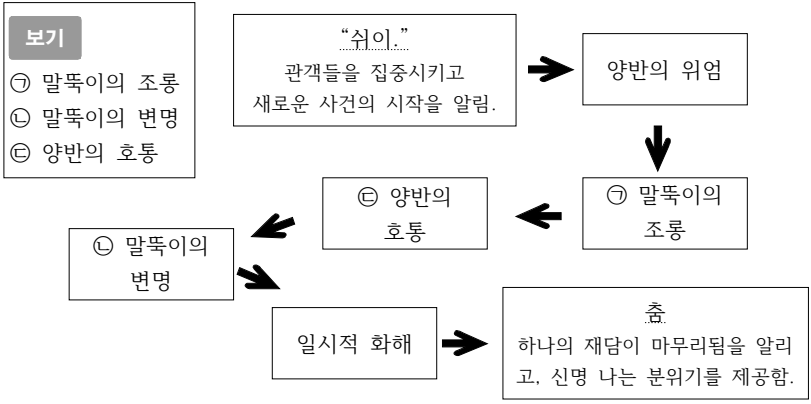
쉬이	춤
관객을 집중시킴	하나의 재담이 마무리됨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림	신명나는 분위기 제공

'가면극'과 '현대 연극(서양극)'의 차이점

	가면극	현대 연극 (서양극)
01 구성	각 과장이 서로 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주제로 구성됨 (옴니버스식 구성).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가 인과 관계에 의해 구성됨 (유기적 구성).
02 공간	공연 공간과 극 중 공간이 필요에 따라 일치하기도 함.	공연 공간과 극 중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
03 관객	관객이 극 중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관객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함.
04 무대	특정한 무대나 무대 장치, 소품 등이 필요 없음.	무대를 별도 공간으로 마련하고, 극 중 상황을 나타내는 소품을 사용함.

“망안 망안” 막춤 망안 망안

- 1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해 보자
- 말뚝이 : 풍자의 주체로서, 양반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천민인 마부이지만 양반의 권위에 굴하지 않고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무능과 허세를 폭로한다.
 - 양반 삼 형제 : 풍자의 대상으로, 양반 계층의 어리석음과 무능, 허세, 횡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통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낸다.
- 2 이 작품의 전반부와 중반부에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 | 보기 |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빈칸에 넣어 작품의 구조를 확인해 보자.



II. 봉산탈춤 [이론편]

3 다음 대사에 반영된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추측하여 말해 보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 주의가 팽배했고, 돈을 받고 문제를 처리하는 등 양반층의 부정부패가 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이 작품의 ‘말뚝이’ 와 | 보기 |의 ‘방자’ 를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비교해 보자.

보기

“이애, 방자야.” “예이.” “저 건너 녹림 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한 게 저게 무엇이냐?” “아니, 무얼 보고 말씀이시오?” “네 이놈, 너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부채발로 보아라.” “부채발이요? 도련님 부채발은 말고, 미륵님 발로 보아도 안 보이요.” “네 이놈, 자세히 보아라.” “아 금매 •자시는 말고 •촉시에 보아도 안 보이요.” “저기 올라간다 올라가, 내려온다 내려와.” “아 도련님, 인제 봤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오라 병든 •솔갱이가 깃 다듬니라고 두 날개를 척 벌리고 움쭉움쭉헌 걸 보고 그러시오?” “네 이놈, 내가 병든 솔갱이를 모르겠느냐? 똑똑히 보아라.”
- 작자 미상, 『춘향가』

말뚝이와 방자 두 인물 모두 양반을 모시는 피지배층이지만, 겉으로는 양반에게 복종하는 듯하면서 은근히 양반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방자형 인물’이라는 점에서 두 인물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II. 봉산탈춤 [문제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질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A]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긋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B]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매주 밭드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곁 곁이 다 찾아다녀도 생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났습디다.

생원 : 이놈, 뭐야! <중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록줄록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중략>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 울록줄록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생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여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녀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녀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 하오? 돈이나 몇 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긱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광남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나타난 말뚝이의 말하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담을 시작하는 말을 하며 극의 전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 ②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며 대상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 ③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음절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경어체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대상을 높이면서도 이면적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을 드러내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봉산탈춤이 공연되던 당시에는 서민들이 지배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을 풍자하여 그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을 웃게 하였는데, 이는 '비판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개질량', '개다리소반' 등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의 위엄을 격하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한 발 가웃'이나 되는 '육모깍지' 등을 맞추어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양반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버드나무 홀뜨기', '바가지장단'과 같이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는 소재를 활용하여 양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노새 원님'을 '말뚝이님 내'가 탄다는 표현을 통해 양반과

말뚝이의 상하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울장'을 꽃아 '깃'을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조와 주제가 같은 민요를 부름으로써 양반의 허세가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② ㉡ : 학식을 자랑하는 놀이는 결국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로 전략하고 있다.
- ③ ㉢ : 기존의 신분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통해 양반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당대에도 양반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피지배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 :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상을 근거로 부정을 저지른 취발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광남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A], [B]를 바탕으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민속극이란 분장을 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이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전해져 온 민간 전승의 연극이었기 때문에 민속극의 대사는 고정된 대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윗글의 [A], [B]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극은 서양의 연극과 다르게 _____ 이와 같은 민속극의 특징을 바탕으로 공연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함으로써 민속극의 형식과 내용은 전승되면서도 공연을 통해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II. 봉산탈춤 [문제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退老) 재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짚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까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중략>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들다가 등에 솔질을 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밧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째짤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썸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나)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생원 :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잡니다.

생원 :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 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주(黃州) 평산(平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뿔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랜이 비호(飛虎) 같은데, 썸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디다.

생원 : 오오, 그리 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 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썸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뭇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썸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썸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김진옥·민천식 구술, 「봉산탈춤」

오금고등학교 (서울)

5. (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I. 봉산탈춤 [문제편]

- ① ㉠ :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주의를 환기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② ㉡ :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 ③ ㉢ :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 : 관객이 극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사이며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민속극의 특징을 드러낸다.
- ⑤ ㉤ : 양반의 위엄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후 갈등이 해소되어 재담이 마무리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6.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양반 문화의 일종인 시조이며 양반이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읊은 것이다.
- ② ㉡는 평민들의 노래인 민요로서 ㉠와 같이 인생무상을 주제로 한 노래이다.
- ③ ㉠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를 통해 말뚝이는 양반들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 ④ ㉣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명을 나열한 말장난으로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 ⑤ ㉠, ㉢, ㉣는 결국 양반의 허세와 무식함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

오금고등학교 (서울)

7. (다)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당시의 사회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대저 하늘이 백성을 만들 때 네 가지 부류로 만들었다. 넷 중 가장 존귀한 것은 선비이니, 이를 곧 양반이라 칭하며 더 이로운 것은 없다. 밭을 갈지도 않고 장사를 하지도 않지만, 글만 조금 하면 크게는 문과(文科)에 오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진사(進士)는 할 수 있다. 문과에 급제하여 받는 홍패(紅牌)라는 것은 크기는 두 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돈주머니와 같다. 진사(進士)는 나이 삼십에 처음으로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 높은 음관(蔭官)이 될 수 있으니 다른 높은 벼슬도 할 수 있다. 꺾바퀴는 일산(日傘) 바람에 휘어지고 배는 하인들의 ‘예’ 하는 소리에 불려진다. 방에는 귀엣고리 요란한 기생들이요, 정원 나무에는 목청 좋게 우는 학을 키운다. 가난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살아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을

불러다가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부로 한들 그 누가 나를 탓하라. 그들의 코에 잣물을 들어 부은들, 상투를 잡아맨들, 수염을 잡아 뽑은들 누가 감히 나를 원망하라.”

부자는 그 문서가 씌어지던 중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만둬. 정말 맹랑하구려. 장차 나를 도적으로 만들 셈이오?”

말을 마치자마자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도망가 버렸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 박지원, 「양반전」

- ① 양반의 부정부패와 부당한 횡포가 있었다.
- ②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했다.
- ③ 천민 계층이 양반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
- ④ 신분의 매매가 용인되어 신분제의 동요가 있었다.
- ⑤ 부를 축적하고 윤리의식을 갖춘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

대성여자고등학교 (광주)

8. 민속극과 현재의 연극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민속극	현재의 연극
㉠	대사, 노래, 춤 등으로 이루어짐	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짐
㉢	무대 공연 장치 없이 표현함	무대장치를 사전에 제작함
㉣	관객이 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대체로 관객은 극에 개입하지 않음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함
㉥	대체로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엮인 피카레스크식 구성임	대체로 한 편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내용을 이루는 구성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문역 명칭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 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화가가 그림 그리는 과정을 형상화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 현재형 어미, △: 의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 부여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그림의 소재인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들 ①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인물과 삶이 짓눌린 모습 형상화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그림의 소재인 가난하고 평범한 서민들 ②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박수근 화법의 특징인 '평면화 작업'과 연관됨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설의적 질문 → 현실 비판 의식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 그림의 작업 과정과 그림 내용 묘사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애상적, 시각적
주제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작품 속 화법을 시로 형상화하여 예술 장르 간의 변용을 보여 줌 ·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설의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함. · 현재형 어미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조성함.

『발바닥도 없이 **서성자성**.

현실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모습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

→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 형상화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감정도 배제된 채 세상에 짓눌려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러곤 드디어 납작해진

그림 속에 표현된 세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펼렁펼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서민들의 애처로운 삶의 모습이 마땅하지 않다는 설의적 질문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 인물의 형상화를 통한 부정적 현실 고발

- 『또 다른 별에서』

핵심정리

- ▣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비판적, 애상적, 시각적
- ▣ **주제**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
- ▣ **특징**
 - 미술 작품 속 화법을 시로 형상화하여 예술 장르 간 변용을 보여줌.
 -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설의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함.
 - 현재형 어미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조성함.

작품의 짜임

- 1연 **그림의 작업 과정과 그림 내용 묘사**
- 2연 **인물의 형상화를 통한 부정적 현실 고발**

'납작납작'의 의미

'납작납작'의 의미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



인물의 표현

- 1 납작하게 눌린 아낙네, 여편네, 아이들
 - 2 발바닥 없이, 입술도 없이, 표정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 ▽
-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

설의적 표현

- 1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 2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 ▽
- 서민들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현실이 마땅하지 않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강조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박수근 평론

1 이 작품의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고 그의 납작납작한 화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시일 것이다.
- 이 시의 제목을 「납작납작」이라고 한 것은 이 단어가 화가의 기법을 드러내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기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다.

2 이 작품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말해 보자.

그림에 표현된 인물들은 ‘(쭈그린) 아낙네 둘, 여편네와 아이들’인데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로, 모두 무엇인가에 짓눌린 듯 납작하고 단순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두 질문은 모두 서민들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현실이 마땅하지 않음을 항변하는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4 | 보기 | 를 참고하여 작가가 「납작납작」을 창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고, 인접한 분야인 문학과 미술의 관계에 관하여 말해 보자.

보기 박수근은 어린 시절의 시골집과 나무, 아낙네들의 모습, 아기 업은 소녀 등 소박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아냈다. 주걱 칼로 물감을 여러번 칠하여 밑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다시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화강암의 표면 같은 질감의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이러한 ‘평면화 작업’을 통해 대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국 서민의 생활상과 정서를 잘 표현했다.

박수근은 독특한 질감의 화법으로 소박한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다. 작가는 이러한 박수근의 그림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의 삶에 연민을 느껴 그의 그림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즉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이라는 주제 의식이 미술에서는 독특한 화법과 그림으로, 문학에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한 시각적 묘사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과 그림은 문학적 또는 회화적 영감을 얻는 데 서로 기여하며 공존과 상보의 관계를 맺고 있다.

5 박목월의 「이런 시」를 바탕으로 창작한 노래를 감상해 보고, 문학과 음악의 관련성을 이야기해 보자.

슬며시 다가와서 / 나의 어깨를 툇 치며
 아는 체하는 / 그런 시
 대수롭지 않게 / 스쳐 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쩍 울리게 하는 / 그런 시
 읽고 나면 /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가 /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번쩍) 떠오르는 / 그런 시
 푸나무와 푸나무 사이의 / 싱그러운 그것 같은
 그런 시 /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문득 쳐다보는 / 갈라진 구름 틈서리로
 밤하늘의 눈동자 같은 / 그런 시
 -박목월, '이런 시' (트루베르 노래)

트루베르의 음악은 다양한 양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시를 표현한 박목월의 「이런 시」를 발랄하고 경쾌한 선율에 담아 노래로 부른 것으로, 시라는 갈래가 본래 운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악으로 변용되었을 때 어색함이 없고 선율과 어우러지면서 시인의 예리하고 섬세한 감각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는 느낌이 든다. 이처럼 예술적 변용이 자유로운 문학과 음악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달해 왔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드문드문 세상을 끌어 내어
-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푸르린 아낙네 돌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 ㉣하나님 보시기 어땠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김혜순,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 위 시의 밑줄 친 ㉠~㉥ 중 아래 <보기>의 내용이 표현된 시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박수근은 공간감을 무시하고 대상을 평면화하여 극도로 단순 명료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렇듯 절제된 표현은 배경의 생략과 더불어 주제 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그는 최소한의 필선으로 대상을 거의 직선으로 조형화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인천초은고등학교 (인천)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수근은 어린 시절의 시골집과 나무, 아낙네들의 모습, 아기 업은 소녀 등 소박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아냈다. 주걱칼로 물감을 여러번 칠하여 밀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다시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화강암의 표면 같은 질감의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이러한 '평면화 작업'을 통해 대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국 서민의 생활상과 정서를 잘 표현했다.

- ① '발바닥도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② '푸르린 아낙네 돌', '여편네와 아이들'을 통해 소박한 서민의 일상을 화폭에 담았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라는 표현을 통해 박수근 화법의 평면화 작업을 보여주고 있군.
- ④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라는 표현은 작품의 화강암 표현 같은 질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군.
- ⑤ '발바닥, 입술, 표정'이 없는 서민의 회화화된 모습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서민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군.

인산농산고등학교 (경기)

3.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설명을 쓰시오.

<보기>
절대자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을 통해 고달프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이 마땅하지 않음을 항변하는 설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 내어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돌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 그렇게 웃고 나서
-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 그러곤 드디어 납작해진
-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김혜순,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가좌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 시의 화자는 그림을 그려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 ② 위 시의 화자는 '쭈그린 아낙네'에 대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위 시의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위 시의 화자는 점차 심화되는 내적 갈등을 구체적 사물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위 시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절대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가좌고등학교 (경기)

5. 위 시와 <보기 1>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의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빼걱거렸다 /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고된 나날이었다

잠만은 편하게 잤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를 꿈속에서도 들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맛있는 잠!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엘 가고 싶었다

- 정진규, '추억-감자 먹는 사람들, 빈센트 반 고흐'

<보기2>

ㄱ. 둘 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타나 있다.
ㄴ. 둘 다 창작 모티브가 된 작품의 화법(畫法)을 표현한 구절이 나타나 있다.
ㄷ. 둘 다 시각적 예술을 변용하여 창작한 작품임을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다.
ㄹ. 위 시에 비해 <보기1>에는 화자의 일상적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ㅁ. <보기1>과 달리 위 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가좌고등학교 (경기)

6.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박수근은 어린 시절의 시골집과 나무, 아낙네들의 모습, 아기 업은 소녀 등 소박하고 서민적인 사람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아냈다. 주걱칼로 물감을 여러번 칠하여 밑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다시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화강암의 표면 같은 질감의 작품을 완성하였으며, 이러한 '평면화 작업'을 통해 ㉠ 대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한국 서민의 생활상과 정서를 잘 표현했다.

1) 윗글을 참고하여 위 시의 ㉠이 의미하는 바를 두 가지만 쓰시오.

2) ㉡가 형상화된 시행을 위 시에서 찾아 쓰시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7.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태어를 통해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8. <보기>를 참고할 때, 시인이 '박수근'의 그림과 화법에 주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박수근은 아낙네, 아이들, 할아버지 등과 같은 서민들의 모습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렸으며 그의 그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물들의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① 박수근의 화법이 시로 형상화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 ② 박수근의 그림이 서민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길 위의 사람들을 그리는 박수근의 화법이 한국적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박수근의 그림이 서민들의 따스하고 밝은 표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입체적인 대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박수근의 화법이 각박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처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화가의 그림에 반영된 소재들을 가리킨다.
- ③ ㉢: 박수근의 그림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힘없이 세파에 흔들리는 서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사평역 / 사평역에서” 문학 특징

핵심정리

-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애상적, 서정적, 감각적**
-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
- 특징
 -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묘사가 돋보임.
 - 비유와 상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 시적 화자가 관찰자의 시선으로 들의 모습을 바라봄.

작품의 짜임

- 1-4행 **눈 내리는 밤 막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안의 풍경**
- 5-8행 **고단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운 순간을 추억하는 화자**
- 9-16행 **침묵하며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 17-21행 **눈썹을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들**
- 22-27행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

핵심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성찰적, 회상적, 서정적**
- 주제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에 대한 교감**
- 특징
 -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바탕으로 서사적인 상상력을 가미하여 창작함.
 - 중심인물 없이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병렬적으로 제시함.

작품의 짜임

- 발단** 눈 내리는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림.
- 전개**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제시됨.
- 절경** 사람들이 각각의 사연을 가슴에 품은 채 흠뻑 난로의 불빛을 바라봄.
- 결말** 두 시간 연착한 막차를 타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남.

소설 ‘사평역’과 시 ‘사평역에서’ 공통점

인물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
소재	막차, 대합실, 눈, 출발
배경	늦은 밤 시골 간이역

소설 ‘사평역’과 시 ‘사평역에서’ 차이점

시	대합실의 분위기와 나의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 전개
소설	막차를 기다리는 인물들의 삶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서술

목적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툽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졸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툽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짝짝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라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여덟 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써라
 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서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경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갓난아이의 주먹만 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수은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 오면서 뚱그렇게 놀란 표정을 미처 지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 날리고 있

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중략)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 툽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 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께에 툽밥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툽밥이 타들어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형편없이 남아 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의 찬 공기를 덥히기에는 어렵도 없을 듯싶다.

1 전체 줄거리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에서 역장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을 둘러본다. [수록 부분] 대합실에는 30대 중반의 농부와 병든 아버지,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중년 사내, 시국 사건으로 제적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대학생, 돈을 훔쳐 달아난 종업원을 찾아 나선 식당 주인 여자, 술집 여자 춘심이, 행상꾼 아낙네 둘, 그리고 미친 여자가 있다. 열차는 두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승객들은 피곤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탄다. 미친 여자만 홀로 대합실에 남아 있고, 역장은 그녀를 위해 툽밥을 더 가져다 부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무실로 돌아간다.

-임철우, '사평역'

가최고등학교 (경기)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고달픈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 도치된 표현을 통해 고달픈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 부정적 현실에 거리를 두어 대상을 관조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가최고등학교 (경기)

2. 밑줄 친 시어 중 (가)의 '청색의 손바닥'의 함축적 의미와 다른 것은?

- ㉠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 ㉡ 이윽고 눈 속을 /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 그 붉은 산수유 열매
-김종길, '성탄제'
- ㉢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 <중략> / 그대 생각을 했던 만도 / 매운 해풍에 /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 불붙어 있었네
-김남조, '겨울바다'

④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 내 이름자를 써보고 /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 탄은 밤을 세워 우는 별레는 /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별 헤는 밤'

가좌고등학교 (경기)

3. (가)와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나무들이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살갓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허리에 배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안고
온몸을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경림, '나무'

1) (가)의 ㉠과 유사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시행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2) '낯설음도 뼈아픔도'와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갖는 시구를 <보기>에서 두 개 찾아 쓰시오.

가좌고등학교 (경기)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삶을 수용하는 모습이 (나)에는 삶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가), (나) 모두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또는 서술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 ④ (가)는 '나'를 통해 (나)는 '역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표면에 드러난 시적화자가, (나)는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5. (가)와의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잘못 말한 것은?

- ① (나)는 (가)의 화자를 소설의 서술자로 삼았군.
- ② (나)는 (가)와 동일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군.
- ③ (나)는 (가)의 1행을 사용하여 동일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가)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등장시키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유사한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군.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6. 아래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소설 '사평역'은 특정한 즐거리가 없이 한정된 배경 속에서 다양한 인물군의 모습을 보여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배경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역할과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까지 한다.

- ①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간이역 역장의 고독한 삶을 부각시키겠군.
- ②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대합실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현대인의 지친 삶을 형상화하겠군.
- ③ 평평 내리는 송이눈을 통해 삶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겠군.
- ④ 쓸쓸한 분위기의 시골 간이역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외롭고 고달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겠군.
- ⑤ 완행열차만 지나가는 간이역을 배경으로 하여 삶에 대한 이유와 관조적 태도를 보여 주겠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툽밥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즐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툽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A]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 모두들 알고 있었다
 ㉢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째룩째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에서'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여덟 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별써라
 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서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경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갓난아이의 주먹만 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수은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 오면서 뚱그렇게 놀란 표정을 미처 지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 날리고 있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

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중략)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 툽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 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께에 툽밥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툽밥이 타들어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형편없이 남아 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의 찬 공기를 덥히기에는 어렵도 없을 듯싶다.

[전체 줄거리]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에서 역장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을 둘러본다. [수록 부분] 대합실에는 30대 중반의 농부와 병든 아버지,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중년 사내, 시국 사건으로 제적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대학생, 돈을 훔쳐 달아난 종업원을 찾아 나선 식당 주인 여자, 술집 여자 춘심이, 행상꾼 아낙네 둘, 그리고 미친 여자가 있다. 열차는 두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승객들은 피곤하고 허탈한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탄다. 미친 여자만 홀로 대합실에 남아 있고, 역장은 그녀를 위해 툽밥을 더 가져다 부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무실로 돌아간다.

-임철우, '사평역'

교하고등학교 (경기)

7. (나)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추적하는 추리적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야기 속 인물이 일련의 상황을 경험하며 떠올리는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몽환적인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인물들이 바라는 이상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교하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의 차가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은 할 말이 많으면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은 감각의 전이를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 사랑

1.⑤ 2.② 3.① 4.④ 5.사랑의 불변성 6.변치 않는 사랑이 파괴와 생성의 불안한 순간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함. 7.② 8.② 9.'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를 통해, ㉠는 화자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가르쳐 준 대상임. 10.② 11.㉠: 변치 않는 ㉡: 어둠에서 불빛으로 / 넘어가는 그 찰나에 ㉢: 불안 12.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의 역설 13.④ 14.③ 15.③ 16.③ 17.③ 18.② 19.④ 20.① 21.⑤ 22.③ 23.④ 24.⑤ 25.① 26.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얼굴. 27.ㄱ: 시간의 흐름은 없음 ㄴ: 내면의 갈등 극복은 없음. 28.② 29.③ 30.②

II 고향

1.③ 2.⑤ 3.④ 4.⑤ 5.④ 6.① 7.⑤ 8.㉠: 이동 수단, ㉡: 수탈 9.⑤ 10.③ 11.⑤ 12.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 시대를 비판함으로써 주제 의식 강화. 13.④ 14.③ 15.1) 위 글의 '나'는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연민하고 공감함. <보기>의 '나'는 거미를 무심하게 바라보다 미안함과 배려심 있게 대함. 둘 다 대상에 대해 없던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 공통됨. 2) 위 글은 고향이, <보기>의 '거미'의 터전이 변화된 것이며 일제의 수탈로 인한 황폐해진 우리 삶을 나타냄. 16.⑤ 17.② 18.③ 19.② 20.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 —. 21.③ 22.⑤ 23.③ 24.⑤ 25.고향 → (서간도) → (신의주 안동현) → (일본) → (고향) → 서울. 26.② 27.② 28.③ 29.⑤ 30.② 31.① 32.① 33.⑤ 34.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현실과 비참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 35.①③ 36.④ 37.④ 38.④ 39.⑤ 40.④ 41.④ 42.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인물(민중을 대변하는 '그')에 대한 서술자(지식인을 대변하는 '나')의 태도 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43.⑤ 44.② 45.③

III 사과를 먹으며

1.① 2.② 3.⑤ 4.③ 5.사과를 먹는 행위에서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자연물과 인간의 노력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순환 과정을 나타냄. 6.⑤ 7.⑤ 8.② 9.③ 10.② 11.④ 12.③ 13.③ 14.④ 15.① 16.⑤ 17.④ 18.시적 긴장감 조성, 자연 순환의 원리 강조 19.⑤ 20.③ 21.④ 22.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 표현. 23.⑤ 24.⑤ 25.③ 26.⑤ 27.⑤ 28.1) 첫 행의 주체와 객체를 바꿈.

2) 사과를 먹던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자양분이 되어 사과에게 흡수됨. 3)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 순환의 원리. 29.⑤ 30.③ 31. 시적 긴장감 조성, 자연 순환의 원리 강조

IV 통산 발췌

1.② 2.③ 3.⑤ 4.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관객이나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었다. 5.⑤ 6.③ 7.① 8.⑤ 9.② 10.⑤ 11.재담과 재담을 구분한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12.⑤ 13.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14.(나):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를 풍자한다. (다): 양반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풍자한다. 15.② 16.③⑤ 17.② 18.③ 19.③ 20.⑤ 21.① 22.③ 23.④ 24.④ 25.④ 26.③ 27.② 28.① 29.③ 30.⑤ 31.② 32.부패와 황금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33.⑤ 34.① 35.④ 36.(1)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2)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37.③ 38.④ 39.② 40.⑤ 41.(1) 말뚝이의 변명, 말뚝이의 조롱, 재담의 시작 (2) (다)와 (라)는 모두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지만, (다)는 양반층이 주로 향유하던 시조이고, (라)는 평민층이 주로 향유하던 민요이다. 42.③ 43.②

V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1.② 2.⑤ 3.현실 비판 4.① 5.③ 6.1)세상에 짓눌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함, 박수근의 화법을 나타냄. 2)발바닥도 없이~ / 입술도 없이~ / 표정도 없이~ 7.② 8.⑤ 9.④ 10.② 11. 납작납작해진 것처럼 인물의 삶이 짓눌린 모습 형상화됨. 12.④ 13.② 14.① 15.펼렁 16.④ 17.⑤ 18.② 19.⑤ 20.② 21.④ 22.③ 23.① 24.③ 25.① 26.④ 27.① 28.② 29.① 30.② 31.① 32.④ 33.(1)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2)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VI 사평역 / 사평역에서

1.② 2.⑤ 3.1)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2) 터진 살갓, 뒤틀린 허리 4.④ 5.① 6.② 7.③ 8.② 9.① 10.③ 11.④ 12.④ 13.⑤ 14.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 (가)는 '나'의 시선으로 (나)는 역장의 시선으로 서술됨. 15.⑤ 16.③ 17.⑤ 18.③ 19.④ 20.눈꽃의 화음 / 시각적 이미지에서 청각적 이미

I 사랑

1.⑤

▶ 공감각적 심상은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접속의 말에 대하여:

ㄱ.접속 부사: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등 →문장을 이어줌

ㄴ.접속 조사: 와/과, 하고, 이며, 이랑...등 →단어를 이어줌

2.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3.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 다.

2.②

▶2연에선 사랑의 특성이 불안감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불안감이 사랑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

3.①

▶①에는 고통이나 아픔과 같은 부정적 상황이 없음.

4.④

▶①과 ④에는 직유법과 반복법이 드러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직유법 vs 은유법 (★★★)

- ㄱ.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 ㄴ.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2.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7.②

▶어조는 동일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8.②

▶'금'이 가는 균열 속에서 사랑의 역설을 깨닫는 것이지 '금'이 가는 불안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10.②

▶ㄱ: '그러나'라는 접속부사를 통해 시상을 전환함. ㄴ:1연과 2연은 의미가 각기 대응됨.

13.④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한다는 <보기>를 통해 ④가 가장 적절함.

14.③

▶㉔에서는 균열 속에서 깨닫는 사랑의 역설을 나타냄.

15.③

ㄱ: 시간의 흐름은 없음 ㄴ:역동적인 이미지는 없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대립적 전개
-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2. 역동적(★)

: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의 의미를 지님. 움직임(동사)과 관련된 표현이 일단 있어야 하지만 시에서 대상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동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보통 역동적인 분위기의 시는 대상의 움직임과 더불어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도 그와 어울리게 밝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

17.③

▶㉠은 화자에게 불안을 일깨우는 것이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있는 것은 아님.

18.②

▶㉠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가 도치됨 ㉡ 사랑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 이미지를 '금이 간 얼굴'처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ㄴ.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은 화자의 심리를 우회적(→돌려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떨떨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①

▶사랑의 불변성을 배움.

21.⑤

▶불안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람을 배운 것은 모순이기에 역설적이라 볼 수 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22.③

▶6·25 전쟁과 4·19 혁명 직전이라는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를 겪은 시인의 상황으로 보아 ③이 가장 적절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성찰에 대해 알아보자! (★★)

1)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2) 대개 화자의 반성, 성찰, 깨달음 등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 낸다.

3)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4)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24.⑤

▶㉡: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을 나타냄.

25.①

▶'너'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님.

28.②

▶<보기>의 시는 자유가 없던 군사 독재 시절의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②가 가장 적절함.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등장하는 현대 소설의 시대적 배경:

개화기, 일제, 광복, 전쟁, 독재 정치, 산업화&도시화 등

30.③

▶위 시 1연-2연과 ③에는 역설법이 사용됨.

I 고향

1.③

▶"어데꺼정 가는 기오?", 그런 기오?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꺼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등 지역 방언은 사실성을 드러냄.

▶넣어둬, 패턴 공략◀

1.문학에서 '사실적', '구체적', '묘사', '대화', '행동', '일상'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며 문제의 정오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2.문학 작품에서 <환상적 분위기>는 고전 소설의 비현실적인 장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초현실적, 비현실적, 기이한, 신이한, 환상적, 도술적>은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구체적 서술 vs 요약적 서술 (★★★)

ㄱ.구체적 서술: 인물의 대화, 상황 및 사건 등의 묘사

ㄴ.요약적 서술: 인물의 내면,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 (서술자 직접 전달)

요약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른 반면 구체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이야기의 흐름이 지연된다.

2.⑤

▶'짜는 듯한 목'을 높이는 건 폐허가 된 고향에 대해 격앙된 '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지, 삶의 의욕을 가지는 것이 아님.

3.④

▶㉠로 인해,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이지 심리적 거리감을 갖는 것이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정서적 거리(심리적 거리) (★★★):